

## “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(Move for Tomorrow)” … 국토교통부 슬로건 발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가 6월 1일 새로운 부처 슬로건, “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(Move for Tomorrow)”를 발표하고, 전 국민의 주거와 이동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다.
- 슬로건은 국토부의 핵심 정책을 나타내는 동사인 ‘짓다(공간, 건설)’와 ‘잇다(이동, 교통)’를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연결하여, 조직의 정체성을 친근하고 안정감 있게 전달하고자 했으며,
  - 미래 기술을 국민의 삶에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국토공간을 조성하고, 교통 혁신을 통해 일상을 긴밀하게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.

<국토교통부 슬로건 디자인 >

**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**  
MOVE : TOMORROW

- 국토교통부는 내부직원 공모전(‘26.3.~‘26.4.), 외부 홍보전문가 자문회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부처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슬로건을 제정했으며,
  - 새로운 슬로건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SNS 채널, 홍보영상 콘텐츠, 주요 행사와 홍보물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.

-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국토부가 국토 위성, 인공지능 도시(AI-City), 자율주행차, 차세대 고속철도 등 많은 최첨단 산업을 담당하고 있지만, 그동안 익숙한 일부 이슈만 부각되어 안타까웠다”면서,
- “새로운 슬로건은 모든 분야의 업무를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국민께 드리는 굳건한 약속”이라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팀	책임자	팀 장	정순열 (044-201-3070)
		담당자	사무관	양지원 (044-201-3057)

**참고**

**국토교통부 슬로건 디자인**

구분	이미지
기본형1	
기본형2	
활용 예시	